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 형성의 특징*

- V+{은,는,을)+N, V+아+V 형을 중심으로 -

김 인 택**

< 목 차 >

- I. 들머리
- II. 어휘부와 형태부 설정의 문제
- III.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의 유형과 결합 규칙
- IV.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 형성의 특징
- V. 마무리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s of the Compound Words including
Verb-Root in Formation

Kim In-T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Characters of the Compound Words including Verb-Root in Word-Form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Gramatical Model is propped like (1).

Lexicon is limited to the Component that offers materials in Morphological Component and Syntactic Component. Morphological Component takes the responsibility of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he word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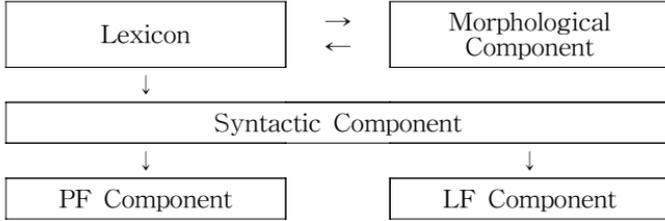
en(은), nun(는), ul(을) in the *Vstem+{en(은), nun(는), ul(을)}+N* is the

* 이 논문은 2003년 11월 1일 한민족어문학회 주최로 열린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김고 보탠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교수

adnominalization affix and $a(아)$ in the $Vstem+a(아)+Vstem$ is the adverbialization affix.

(1)



I. 들머리

합성어, 파생어, 구, 절, 문장 등은 언어의 생산적인 운용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언어형식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형태론적 과정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며 구, 절, 문장은 통사론적 과정에 따른 것이다.

합성어란 합성법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이다. 합성법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는 언어 운용의 한 방법이며 여기에는 여러 규칙들이 존재한다.

- (1) ㄱ. 오르내리다, 오가다..., 덮밥, 늦잠 ...
 ㄴ. 날아가다, 뛰어가다 ..., 고린내, 간밤, 큰집 ...

(1)은 모두 동사 어근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합성어이다. 통상 (1ㄱ)과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1ㄴ)과 같은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라 하여 구분하여 왔다.¹⁾ 특히 통사적 합성어의 경우는 구성 성분들의 결합 양상이 통사적 구성과 동일함으로 해서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합성어 형성의 합리적인 설명을 도모하기 위해 어휘부의 역

1) 허 응(1983: 144~147) 참조

할과 형태부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사 어근을 구성 성분으로 갖는 합성어 형성에는 어떤 규칙이 작용하는가를 구성요소들의 결합양상을 통해 보임과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규칙은 형태부에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형사화 접사와 부사화 접사의 설정 가능성을 열어 볼 것이다.

II. 어휘부와 형태부의 설정 문제

언어의 운용은 언어형식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합성어의 형성은 형태론적인 문제로 형태론 부문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의 (1-)과 같은 유형의 합성어에 대해서는 그 형성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것은 구성성분의 결합 양상이 통사론적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합성어임에는 분명한데 통사론적인 구성과 동일하니 (1-)과는 달리 본래 통사론적 구성이던 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형태론적 구성으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²⁾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합성어들의 구성 형태소들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큰집’이 ‘큰 집’과 같은 구성이 어휘화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할 때 ‘큰집’도 ‘큰 집’과 마찬가지로 ‘수식어+중심어’ 구성이며 수식어인 ‘큰’은 어간 ‘크’와 문법범주인 관형형어미 ‘(으)ㄴ’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큰 집’을 ‘어근+어근’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큰’의 범주에 대한 것이며, ‘큰’을 ‘어간+어미’로 분석 설명한다면 통사론적 층위에서의 설명 방법이 형태론적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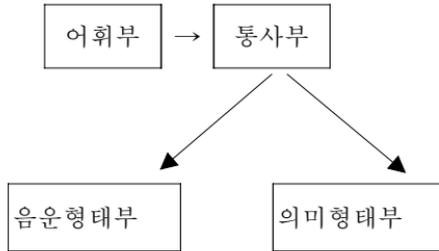
생성문법이론에서는 전통문법에서의 형태론 분야를 ‘어휘부’라는 부문을 두어 여기서 다루었다. Chomsky(1973) 이후 생성문법에 어휘부가 한 부문으로 본격 등장하면서 생성형태론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휘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어휘부에는 기본적으로 사전과 단어형성 규칙과 원리가 있다. 새로운 어휘

2) 김창섭(1996:25)에서는 ‘구의 어휘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를 만들 때에는 사전에서 어휘소를 제공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단어 형성의 규칙이나 원리가 적용되어 새 어휘가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사전에 등재되는데 이러한 과정 모두가 어휘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생성문법은 이러한 어휘부를 돕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략의 문법 모형을 확립하게 되었다.

(2) 문법 부문과 모형



위와 같은 모형에서는 어휘부가 통사부에서 요구하는 어휘를 제공하며 또한 합성이나 파생의 절차까지도 망라하는 규칙체거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어휘부의 내부 조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어휘부 내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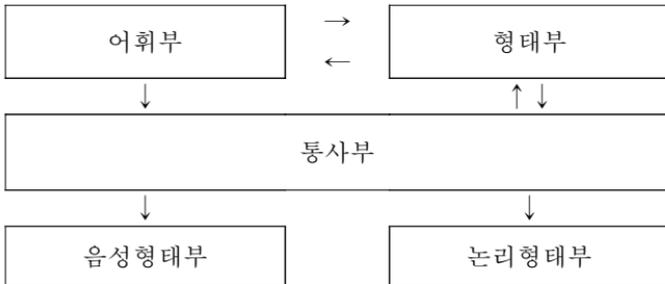
단어형성부, 해석부	
제공 ↑	↓ 등재
사 전	

이러한 어휘부는 그 내부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규칙이나 원리, 새로운 어휘에 대한 해석부를 가짐과 동시에 통사부에 어휘를 제공하는 사전을 가지고 있어 그 기능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문법의 한 부문인 통사부는 일정한 규칙들과 원리만 가지고 있을 뿐 통사론적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휘부에서 제공받는 등 그 기능상의 부담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런 점을 고

려해 보면 어휘부가 갖는 기능 부담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어휘부 내부의 하위 부문에 제공하고, 통사론적 단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부문인 통사부에 제공한다는 일관성 없는 절차를 가지는 비합리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어휘부가 규칙과 원리를 담당하는 하위부문과 사전이라는 하위부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통사부와 같은 규칙이나 원리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 형성부는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문법 설명에 있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휘부는 규칙이나 원리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는 부문에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합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형성 규칙이나 원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형태부’를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있는 최근 논의 중 하나인 김일병(2000:144~150)에서는 “어휘부는 어휘소 및 단어가 등재되는 곳이다. 이 때 등재되는 것은 품사로 분류되는 단어들만이 아니다. …(중략)… 통사부는 어휘부에 등재된 단어, 어휘소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형성하는 장치이다.…(중략)… 이와 같이 어휘부와 통사부를 규정할 때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든 비통사적 합성어든 그 어느 것도 통사부나 어휘부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4)와 같은 문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4) 문법 모형



이상의 문법 모형에서 보이는 특이한 것은 ‘형태부’라는 새로운 부문의 등장이다. 김일병(2000)에서 ‘형태부는 단어를 형성하는 모든 형태론적 원리와 규

칙들이 가동하는 곳'이라 하는데 이는 단어 형성부와 해석부를 어휘부에서 분리하고 어휘부는 단순히 어휘 자료가 모인 창고인 동시에 형태부나 통사부에 어휘자료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그 역할을 축소시킨 것이다. 형태부의 설정은 단어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형태부' 설정으로 위 (4)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어휘부와 형태부, 그리고 형태부와 통사부가 상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이다. 어휘부와 형태부의 양방향성은 어휘부를 위 (3)과 같은 모형으로 간주할 때 '사전'과 '단어형성부, 해석부'가 지니는 양방향성과 별 다른 점은 없다. 그러나 '형태부'와 '통사부'가 양방향성은 지니는 것은 '형태부'를 설정하고 여기에 단어 형성 원리와 규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김일병(2002)에서는 합성어 형성에 두 방향성이 있음을 보이는데 형태부가 어휘부를 참조하는 방향성과 통사부를 참조하는 방향성이 그것이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은 형태부가 어휘부를 참조하는 방향에서 비롯되며 통사적인 합성어는 통사부를 참조하는 방향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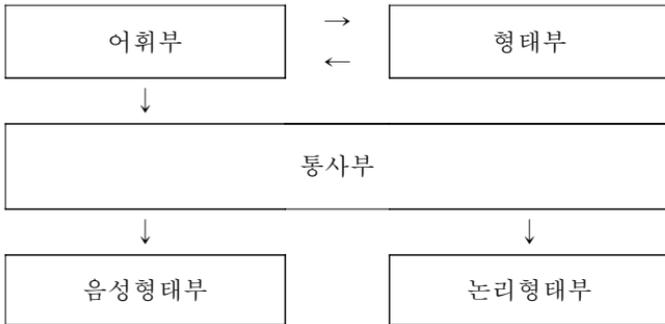
위의 (3)과 같은 어휘부를 (4)와 같이 어휘부와 형태부로 분리하였을 때 (4)의 어휘부는 단순히 어휘의 운용(어휘들의 결합이나 통합)을 위해 형태부와 통사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며 여기에는 단어, 접사 등이 존재하는 곳이 된다. 그리고 어휘의 결합이나 통합의 문제는 형태부와 통사부가 지니는 규칙이나 원리에 따르게 되는데 그 과정상의 차이점은 형태부에 있는 규칙이나 원리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언어형식은 어휘부에 다시 등재되어 하나의 어휘소가 되는 반면 통사부에서 형성된 통사론적 단위는 어휘부에 재 등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사적 합성어와 통사론적 구성의 차이가 생기는데 통사적 합성어 구성에 관여하는 요소와 통사론적 구성에 관여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곧 통사적 합성어에는 어휘부에 있는 파생접사가 관련되어 있고 통사론적 구성에는 문법범주가 관련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위 (4)의 문법 모형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곧 형태부의 기능에 통사

3) 형태부는 통사부에서 통사적 규칙이 적요되어 형성된 구적 단위가 하나의 어휘소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형태적 규칙을 검증 받는 곳으로 기능한다고 봄

적 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된 구적 단위가 하나의 어휘부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형태적 규칙을 검증받도록 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하여 형태부와 통사부의 양 방향성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사적 합성어의 기본이 통사론적 구성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큰집’에서의 ‘(은)ㄴ’과 같은 형태소의 처리 문제가 생기는데 형태부와 통사부의 양 방향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법범주인 관형사형 어미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란 통사론적 구성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형태론적 구성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형태소로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큰집’은 통사부에서의 구성 절차와 아무런 관계없이 형태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은)ㄴ’은 문법범주 ‘(은)ㄴ’과 동형인 파생접사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⁴⁾

이처럼 통사적 합성어가 철저히 형태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4)의 문법모형은 다음 (5)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수정된 문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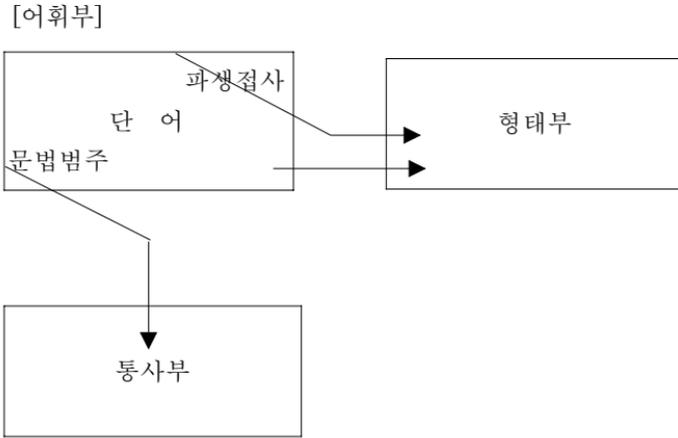


곧, 형태부와 통사부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각각에는 언어 단위를 운용하는 독자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휘부와 형태부는 자료 제공과 재 등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어휘부와 통사부 사이에는 일방향이어서 통사론적 구성이 다시 어휘부에 재 등재될 수 없다. 그러면 이른

4) 우리말에서 전성어미와 파생접사가 동형인 것은 다양하다. 명사화 접사 ‘음, 기’, 명사형 어미 ‘음, 기’, 부사화 접사 ‘게’와 ‘부사형어미’-‘게’ 등이 있다.

바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 단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지가 문제이다. 여기서 이 문제는 어휘부의 구성 요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형태부와 통사부로 제공되는 요소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곧 어휘부는 자료 창고이자 자료 제공처로 단어, 파생접사, 문법범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생접사는 형태부에 제공되는 요소이며 문법범주는 통사부에 제공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문법범주와 동일 형태를 지닌 파생접사가 평행하게 존재하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어휘부와 형태부 통사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6) 각 부분의 관계



이 장에서는 문법 모형에서 어휘부와 형태부를 설정하였다. 어휘부는 단순한 어휘창고로서 형태부나 통사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형태부는 단어 형성 규칙과 원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어휘부와 형태부, 통사부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어휘부와 형태부는 양 방향성을 지니는 반면 어휘부와 통사부 관계에서는 어휘부가 통사부에 대한 방향성만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형태부와 통사부는 독자적인 것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통사적 합성어라 할지라도 이는 형태부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통사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음을 전제한 것이다.

Ⅲ.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의 유형과 결합 규칙

Ⅱ장에서 형태부와 통사부는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휘부에서 어휘소들을 제공받아 형태론적 구성이나 통사론적 구성의 언어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런데 비록 그 부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형태부나 통사부가 가진 구성성분의 결합이나 통합상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원리는 동일 언어 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장에서는 동사 어근을 구성성분으로 갖는 합성어의 구성 양상을 통사론적 구성 양상과 비교해 봄으로써 형태부와 통사부에 있는 각각의 규칙이나 원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본다.

1. 통사론적 구성의 통합 어순

통사론적 구성 단위에는 문장과 구가 있다.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의 통합 어순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말에서의 문장성분 통합어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서술어로 그 위치는 문장의 끝이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구 구성 성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분들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자동사문은 ‘주어+서술어’, 타동사문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이다.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통합된 통사론적 단위로 그 구성 성분이 통합함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우리말에서는 ‘수식어+중심어’ 구성으로 중심어가 뒤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음은 각 구의 특성과 선행 수식어의 자격에 대해 살핀 것으로 이는 합성어 형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가. 명사구: a. {관형사, 동사의 관형사형, 명사}+명사
b. 명사+와/과+명사
- 나. 동사구: a. {부사, 동사의 부사형}+동사
b. 동사+연결어미+동사.

다. 부사구: 부사+부사

2. 형태론적 구성의 결합 어순

합성어나 파생어를 포함한 복합어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 요소의 결합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는 대체로 통사론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장에서는 동사 어근이 한 구성성분이 되는 합성어(복합어 포함)의 구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통사론적 구성에 있어서 보이는 어순 규칙과 동일함을 살펴본다.

- (7)ㄱ. 손쉽다, 모내다, 겹치다, 널뛰다
 - ㄴ. 날아가다, 뛰어가다, 빨아먹다, 놀아나다
 - ㄷ. 여닫다, 오르내리다 엮매다, 섞바꿔다
 - ㄹ. 가는톱, 큰집, 잔피, 흰수작, 먼둥,
가는귀, 노는계집, 솟을대문, 건널목,
 - ㅁ. 가림막, 받침틀, 나들이옷, 먹이사슬
 - ㅂ. 걸음걸이, 살림살이
 - ㅅ. 선부르다
 - ㅇ. 겹치기, 널뛰기 낮가림, 발싸개, 길잡이
 - ㅈ. 내려받기, 달려가기,
 - ㅊ. 여닫기, 죽살기
 - ㅋ. 늦잠, 늦가을, 덮밥, 꽃감

동사 어근이 구성성분이 되는 합성어의 예는 대략 (7)ㄱ~ㅋ과 같다. 그 구성관계를 유형화하면 다음 (7)'와 같다.

- (7)'ㄱ. N+Vstem
 - ㄴ. [V₁stem+아/어]+V₂stem
 - ㄷ. V₁stem+V₂stem
 - ㄹ. Vstem+{은, 는, 을}+N
 - ㅁ. Vstem+{음, 이, … }+N

- ㄷ. Vstem+{음, 이, ... }+Vstem+{기, 음, 개, 이, ... }
- ㄸ. Adv+Vstem
- ㄹ. [N+Vstem]+{기, 음, 개, 이, ... }
- ㄺ. [[V₁stem+아/어]+V₂stem]+{음, 기}
- ㄻ. [V₁stem+V₂stem]+{기, 음, 이, ... }
- ㄼ. (Vstem)+Vstem+N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어 구성성분들의 결합 어순과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통합 어순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ㄱ)'은 통사론적 구성의 '{주어(명사), 목적어(명사)}+서술어(동사)' 구성과 동일하며 (7ㄴ)'은 동사 연결구성과 동일하다. 그리고 (7ㄷ)'는 동일 범주의 동사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된 것으로 통사론적 구성의 대등적 구성과 동일하다. (7ㄹ, ㄺ, ㄻ)'는 통사론적 구성인 '관형어+명사', 곧 '아름다운(동사의 관형형)+사람(명사)'나 '어머니(명사)+사진(명사)'과 동일하여 그 결합 어순은 통사론적 통합 어순과 같다.

(7ㄸ)'는 동사구 구성인 '부사어+동사'와 어순이 동일하다. (7ㄱ, ㄴ, ㄷ)'가 각각 명사로 파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7ㄷ)'의 구성은 사실 통사론적 구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특이한 구성으로 동사에 아무런 파생이 없이 명사와 바로 결합한 것으로 통사론적 구성에는 없는 형식이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형태부에서의 성분끼리의 결합 어순이나 두 요소의 의미적 관계는 통사부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동사 어근을 구성요소로 가지는 합성어에 한정되어 살펴보았지만 형태부에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일정한 규칙과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통사부가 지닌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형태부가 통사부에 있는 규칙이나 원리를 참고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곧 통사부가 형태부에 간접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문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위 (7ㄷ, ㄺ~ㄻ)'은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데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IV.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 형성의 특징

Ⅲ장에서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에 한정하여 그 유형과 구성 요소간의 결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형태부에 주어진 규칙의 일부를 찾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 중 논란이 되는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상 특징과 구성 형태소 분석을 시도해 본다. 논의는 'V+(은,는,을)+N'과 'V+아+V'에 한정한다.⁵⁾

1. Vstem+{은, 는, 을)+N

이 유형의 합성어는 다음과 같다.

- (8) 고린내, 단감, 된서리 찬밥, 큰집, 잔주름, 잔피, 흰수작, 먼동, ...
간밤, 터진목, 가는귀, 노는계집, 든거지, 길동물, 날벌레, 솟을대문, ...
뜬눈, 건넌방, 꺾는목, 내릴툭, 볼품, 건넌목, 짙손, 참을성,

이 유형의 구성은 통사론적 구성인 '관형어+명사'와 동일하다. 통사론적 구성과 다른 점은 동사의 관형사형이 서술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형성과정을 두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Vstem+{은, 는, 을}과 N이 형태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본디 통사론적 구성인 Vstem+{은, 는, 을)+N이던 것이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합성어로서 형태부에서 형성과정을 거쳐 어휘부에 등재된 합성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Vstem+{은, 는, 을)+N'의 형성과정에 대해 보자. 우선 형태부의 결합 어순의 규칙과 관련하여 Vstem이 N에 선행 결합하기 위해 관형사가 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은, 는, 을}은 동사를 관형사로 파생하는 파생접사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Vstem+{은, 는, 을)+N 합성어의 형성은 1차 Vstem이 어근으로 접사 {은, 는, 을}과 결합하여 관형사로 파생하고 이어서 Vstem+{은, 는, 을}형의 관형사와 N이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이런 유형의 합성어와 이와 같은 형식의 통사적 구성의 구별에 대해서는 서정수(1996:95~113)등에서 잘 밝혀져 있다.

이 과정을 (9)와 같이 보일 수 있다.

(9) 뜨- + 느 + 눈

뜨 (과생:관형사화)

뜨눈(합성)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형사화 파생접사의 설정 문제이며, 과연 ‘뜨’를 관형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말 문법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관형사로는 ‘다른, 한…’ 정도로 설정하고 있을 뿐 위에서 보이는 ‘고린, 간, 뜨…’과 같은 다양한 어형들에 대해서는 관형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관형사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만약 이들을 관형사로 인정한다면 ‘가는 허리, 간 사람, 뜨 눈, …’ 등과 같은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가는, 단, 뜨, …’을 관형사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어 구성에서의 Vstem+{은, 는, 을}과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Vstem+{은, 는, 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곧 합성어 구성에서의 Vstem+{은, 는, 을}은 서술성이 없는 반면 통사론적 구성에서는 Vstem+{은, 는, 을}는 서술성이 있다는 점이며⁶⁾ 동작동사의 경우 통어론적 구성에서는 Vstem이 ‘은’, ‘는’, ‘을’과 아무런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으나 합성어 구성에서는 그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고려 해 보면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은, 는, 을}과 합성어 구성에서의 {은, 는, 을}은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관형사형어미라는 문법범주와 동형의 관형사화 접사가 어휘부에 존재하며 이는 형태부에만 제공되는 요소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에 어휘부의 파생접사 항목에 관형사화 접사가 존재함을 상정할 수 있다.

2. V₁stem+아/어+V₂stem

6) 서정수(1996:95~113) 참조

이 유형의 배열과 동일한 것으로 합성어 구성, 그리고 동사연결 구성,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이 있다. 합성어 구성은 형태론적이지만 동사연결 구성이나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은 통사론적인 것으로 이들 사이의 차이를 우선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성어 구성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단계를 설정해 본다.

(10) 합성어 구성의 검증 단계

a. V_1 과 V_2 가 동일범주

→ $V_3(=V_1\text{stem}+\text{아/어}+V_2\text{stem})$ 동일범주

(V_1 : 자동사 V_2 : 자동사 → V_3 : 자동사)

① 명사항의 선택제약 검증

② V_1 서술어 문장에 V_2 서술어 문장만이 가지는 명사항 삽입

b. V_1 과 V_2 가 다른 범주 → V_3 의 범주?

① 명사항 검증

② V_1 서술어 문장에 V_2 서술어 문장만이 가지는 명사항 삽입

동사 ‘뛰어가-’로 (10a)에 대한 검증을 해 보자. ‘뛰어가-’에서 V_1 은 자동사 ‘뛰-’이며 V_2 는 자동사 ‘가-’이다. 이들 각각의 명사항 선택제약을 보이면 다음 (11), (12)과 같다.

(11) ㄱ. 사자가 뛰다

ㄴ. *기차가 뛰다

(12) ㄱ. *사자가 북으로 뛰다.

ㄴ. 기차가 북으로 간다.

(11)은 ‘뛰다’의 명사항 선택 제약을 보인 것이며 (12)는 ‘북으로’라는 명사항의 선택에 있어 ‘뛰다’는 부적절하지만 ‘가다’는 적절함을 보인 것이다. (11)과 (12)를 바탕으로 (10a)의 ②를 적용시켜 보면 다음 (13)과 같이 적절한 문장이 된다.

(13) 사자가 북으로 뛰어간다.

이 때 ‘뛰어가-’는 ‘뛰-’와 ‘가-’의 경우와 달리 주어로서 ‘사자’와 부사어로서 ‘북(으로)’을 선택하는데 이는 ‘뛰어가-’가 하나의 단어가 되어 선택제약을 하기 때문이며 그 범주는 자동사가 된다.

다음은 동사 ‘쫓아가-’를 가지고 (10b)를 바탕으로 합성어 구성의 여부를 파악해 보자. ‘쫓아가-’는 타동사 ‘쫓-’과 자동사 ‘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명사항 선택에 대한 검증을 보이면 다음 (14), (15), (16)과 같다.

(14)ㄱ. 아내가 남편을 쫓는다.

ㄴ. 아내가 산으로 간다.

(15)ㄱ.*아내가 남편을 산으로 쫓는다.

ㄴ.*아내가 남편을 산으로 간다.

(16) 아내가 남편을 산으로 쫓아간다.

(15)는 (14)에서 보인 ‘쫓-’과 ‘가-’가 취한 명사항 모두를 선택한 것인데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와는 달리 (16)에서와 같이 서술어가 ‘쫓아가-’일 때는 문법적이다. 이 때 ‘쫓아가-’는 ‘쫓-’과 ‘가-’와 달리 주어 ‘아내’ 목적어 ‘남편’ 그리고 부사어 ‘산(으로)’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동사가 된다.

(10)의 검증 과정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보인 ‘뛰어가-’나 ‘쫓아가-’는 합성동사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다.

다음의 경우는 동사 연결 구성과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인데 위에서 보인 경우와 다르다.

(17)ㄱ.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

ㄴ.*철수가 밥을 집으로 먹고 갔다.

ㄷ. 철수가 밥을 먹고 집으로 갔다.

(17)은 동사 연결 구성에 해당하는데 (16)에서처럼 ‘먹-’과 ‘가-’가 취하는 명사항을 (17ㄴ)에서와 같이 ‘먹고 가-’ 구문에 선택하였을 때 비문법적이다.

(17ㄷ)은 ‘먹-’ 선택 명사항과 ‘가-’ 선택 명사항을 분리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은 문법적이다. 이는 ‘먹고 가-’가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 아니라 두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18)ㄱ. 소가 죽어 간다

ㄴ.*소가 저승으로 죽어 간다.

(18)은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으로 (18ㄴ)에서처럼 ‘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저승으로’를 성분으로 선택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된다.

이상에서 V_{1stem}+아/어(고)+V_{2stem} 형으로 합성어 구성과 동사연결 구성,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제는 ‘뛰어가-, 쫓아가-’에서의 ‘-아-’와 ‘먹고 가-, 죽어 가-’에서 ‘-고, -어’의 처리이다. ‘먹고 가-’와 ‘죽어 가-’는 통사론적 구성으로 여기에 있는 ‘-고’나 ‘-어’는 문법범주로서 연결형 어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뛰어가-, 쫓아가-’는 형태론적 구성으로서 구성요소인 ‘-아-’는 문법범주로 처리할 수 없다. ‘뛰어가-, 쫓아가-’가 ‘뛰어+가’, ‘쫓아+가’로 그 결합관계를 보이면 ‘뛰어, 쫓아’는 다시 ‘뛰+어, 쫓+아’로 될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19) 뛰 + 어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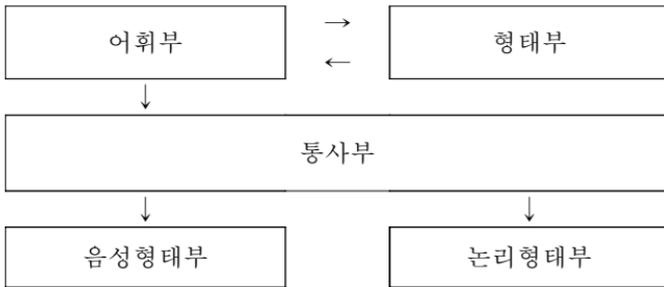
(19)에서 ‘-어’의 처리를 위해서는 ‘뛰어’와 ‘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말 구조에서 동일 범주가 이어질 때는 대개 병렬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쫓아+가-’의 경우를 보면 ‘쫓-’은 타동사 ‘가-’는 자동사로 병렬관계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가-’가 동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선행 요소는 ‘부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말의 구조적 특징이다. 따라서 ‘뛰어’는 부사로 설정할 수 있으며 ‘-어’는 부사화 접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V_{1stem}+아/어+V_{2stem}형 합성어에서 ‘V_{1stem}+아/어’가 ‘V_{2stem}’로 보이는 행위

나 상태의 양태가 되거나 행위의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V. 마무리

이 글에서는 다음 (20)과 같이 문법모형을 설정하고 동사 어근 구성 합성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0) 문법 모형



어휘부는 순전히 통사부와 형태부에 자료 제공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한정하였고 단어 형성 규칙과 원리는 형태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통사적 합성어도 모두 이 형태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Vstem+(은, 는, 을)+N, Vstem+아+Vstem’ 형의 합성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Vstem+(은, 는, 을)+N 형에서의 ‘은, 는, 을’을 관형사화 접사로 Vstem+아+Vstem 형에서의 ‘-아’는 부사화 접사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단어 형성 규칙(Rules of Word formation), 문법 모형(Grammatical Model), 어휘부(Lexicon), 형태부(Morphological component), 관형사화 접사(Adnominalization affix), 부사화 접사(Adverbialization affix)

참고 문헌

김일병(2002),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 총서21, 태학사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허 옹(1983), 《국어학》, 샘문화사

Chomsky(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S. R. Anderson and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einhart and Winston, New York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